

부천시회 산재예방 간담회 실시



안전협회 부천시회(사무국장 김오복)는 지난 8월 29일 부천관광호텔에서 이흥지회장을 비롯해 부천지방노동사무소 김삼암 소장, 홍전표 안전과장, 근로복지공단 이재덕 지사장 등 내외 귀빈과 110여명의 안전보건 관계자를 모시고 부천·김포지역 산재예방을 위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흥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김삼암 소장은 “부천·김포지역의 산재재해가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아 참석자들에게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당부하였다.

KISA, 미국 DuPont과 기술협약 확대



지난 8월 3일 미국 듀폰(DuPont)사의 Asia Pacific지역 부사장 Laurence O' Dwyer씨가 안전협회를 방문하여 기술협약 확대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Laurence O' Dwyer씨는 DuPont사의 과거 SEMS에서 지식산업 위주로 확대 개편된 DSR(DuPont Safety Resource)의 책임자로서 안전협회와 함께 지식산업 진출을 협의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이날 이흥지 회장을 비롯한 관계 임원 및 기술진이 참여하여 협회 현황소개 및 DuPont의 DSR에 대한 Presentation과 그 동

안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의 DSR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한국에서의 사업방향과 안전협회와의 협력관계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그 동안 DSR사업의 성공으로 보아 향후 사업확대에 많은 기대를 하게 된다.

대우건설 협력업체소장 대상으로 한 2차교육 실시



안전협회는 대우건설 협력업체의 재해예방을 위해 2001년 제2차 대우건설 협력업체소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안보 환화리조트 연수원에서 실시된 8월 30, 31일 양일간 교육은 지난 7월에 이은 두번째 교육으로 대우건설 협력업체 소장들의 안전의식을 안전협회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의식향상 및 최신 안전기술의 습득으로 대우건설 현장 모든 곳이 무재해사업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협회 건설안전국 이전

안전협회 건설안전국(국장 강태주)은 방배동에서 구로동 협회 신사옥으로 옮겨 새로운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건설 현장 재해예방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 중앙화와 건설안전국 사무실을 분리하여 운영하였으나, 지난 5월 안전협회 신사옥 이전에 이어 건설안전국이 이전하게 된 것이다. 분리 운영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신속성에서 문제가 되었으나 이번 이전으로 이 모든 것을 해소하고, 보다 더 신속하고, 향상된 서비스로 고객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1년 상반기 산재발생율 증가

노동부가 발표한 금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산재발생율은 0.38%로서 전년동기 대비 0.03% 포인트(8.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1.22로서 전년동기대비 0.14포인트(10.29%) 감소하였고, 업무상질병만인율은 2.72로서 전년동기 대비 0.34포인트(14.29%) 증가하였다. 또한 재해자수는 37,552명으로 전년동기 8,814명(30.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재발생율이 증가한 원인은 산재보험 적용확대로 인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급증하였고, 산업 안전보건부문에 대한 규제완화와 기업구조 조정 등으로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축소되는 등 사업장내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의 약화, 산재보상 인정범위 확대와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안전보건부문 투자감소, 5인 미만 사업장법적용 확대에 인하여 산재예방지도감독 행정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직업성요통, 뇌·심혈관질환자가 특히 크게 증가추세이며, 사망 만인율은 감소하였으나 사망자수는 증가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손실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노동부 하반기 산재예방 비상체제 돌입

노동부에서는 상반기 재해발생 추이로 보아 올해 하반기 산재율이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예측되어 하반기 산재예방 비상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중 2001. 7월말 현재 전년동기보다 재해율이 증가한 수칙들(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작업전 안전점검 및 작업중 정리정돈 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오는 10월 부터는 각종 사업장 점검·감독시 11대 기본수칙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기본수칙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입건·수사하기로 했다.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망재해 다발유형(협착, 낙하·비래) 및 다발부문(근로자수 10인 미만 목재품·제재 및 베니어 판·금속·기타 제조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각종 점검·감독 및 재해조사 결과 범위만 사항 적발시 의법조치한다.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작업관련성질환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격계지원전담반을 통하여 사업장 기술지원을 추진하며, 산재은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부당이익금 환수자 조사 및 산재은폐신고센터 운영에 철저히 하여, 요양기간 84일이상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최근 3년이내 2회이상 재해를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입건·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러한 하반기 추진지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노동청별로 8월말까지 산업안전과장 및 감독관 교육을 자체 실시하고, 본부에서는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업무 추진상황 점검반을 구성, 산재예방 부진관서들에 대한 현지 점검도 실시한다.

『CLEAN 3D』 사업 대대적으로 추진

초 근 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재해증가에 신속한 대응과 열악한 작업환경, 저임금 등으로 인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동시에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 『CLEAN 3D』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올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은 약 4조 2,000억으로 추정된다. 특히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증가율이 높으며, 열악한 환경에서의 직업병환자도 35.8%증가하였다.

노동부에서는 특히 근로자 50인미만 172,000개 3D업종(12개업종) 사업장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조성하기 위해 CLEAN 3D 사업을 중점추진할 계획이다. 『CLEAN 3D』란 각종 유해·위험요인과 원활한 작업을 저해하는 요인(3D)을 적절한 수단과 방법으로 제거·개선(CLEAN)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CLEAN 3D란?

- Danger(위험) : 산업재해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안전상의 조치)
- Dirtiness(더러움) : 직업병을 유발시키는 유해요인(작업환경 개선)
- Difficulty(힘듦) : 불편하고 힘든 작업을 유발시키는 요인(작업공정개선)

